

대구 미분양물량 천국... 회색도시 될까 두렵다

대구 미분양물량 1만70가구 전국서 경기 다음으로 최고 지방 '중소건설업계' 유동성 부족으로 줄도산 위험 처해

지방 건설경기가 최악의 늪에 빠졌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의 중견·중소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도시정비사업과 해외 사업 등으로 침체기에도 버티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초체력이 부족한 지방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갈수록 커지면서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온기 역시 대형 건설사의 몫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미분양과 신규 인허가 착공 건수 등 객

관적 지표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1822가구로, 8개월 만에 감소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가구로, 12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1822가구로, 전월(7만4037가구) 대비 2215가구(3%) 감소했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가구로, 전월(1만4856가구) 대비 1182호(8%) 증가했다.

전체 미분양 물량 중 80.2%(5만7833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은 1만3989가구로, 전월(1만5051가구) 대비 1062가구(7.1%) 감소했다.

미분양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1만187가구)와 대구(1만70가구) 등 순으로 집계됐다.

분양 전망도 밝지 않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100을 넘기지 못했다.

분양 경기에 대한 전망을 100을 기준으로 보고, 이 수치가 100보다 낮으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산연에 따르면 △전남 64.3 △광주 66.7 △경북·경남 86.7 등 지방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신규 건설 허가 신청과 착공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인허가된 주택은 17만1677가구에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한 수치다.

착공 실적 또한 1만6024가구로, 전월 대비 22.6% 줄었다.

철도나 도로, 항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안이 1조원 이상 줄면서 지방 중견·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7000억원 감액된 58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SOC 사업 예산은 1조2000억원(5.8%)이 나뉘어 19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부도난 건설업체 수가 22곳에 달한다.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7월 기준) 누적 기준 부도난 건설업체(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 정지 건설업체로 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 제외)는 모두 22곳이다.

동기 기준(1~9월) 2019년(42곳)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자, 지난해 전체 부도 업체(21곳) 수를 넘어선 것이다.

면허별로 부도 업체는 △종합 7곳 △전문 15곳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1곳 △경기 2곳 △부산 5곳 △광주 2곳 △울산 1곳 △강원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전남 2곳 △경북 2

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이다.

건설사 폐업도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295건으로, 전년 동기(218건) 대비 35.32% 늘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1158건으로, 1270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중소건설업계가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 위험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수도권 분양시장 일부가 살아났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고,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지방 중소건설업계의 자금색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시장에 흡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경제의 침체를 완화하는 차원의 공공공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지난 28일 당원간 화합을 위한 '2024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당원 한마음 가을운동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날 가을 운동회에는 김민석, 전현희, 이연주 최고위원과 이수진, 임미애 국회의원 등 당 지도부가 총 출동한 가운데 경북도당 1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당원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제공)



김주수,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賞... 김주수 의성군수가 '2024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인구와 청년정책 집중 및 차별화된 지역특화형 재생 사업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고래불해수욕장 리조트·호텔 건립 '활화산'

경북도·영덕·울진군 동해안 '투자펀드' '실무협체' 추진

영덕군이 환동해안시대 최대 관광도시로 거듭 태어난다.

영덕군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1500만명 관광객 유치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경북도와 영덕군이 지난 26일 영덕군청에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투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구미와 울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 개발 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고래불해수욕장에는 애초 도청 직원 복

지 휴양시설로 기획된 '경북 수련원' 건설이 예정돼 있었으나, 민간투자 사업으로 확장됨에 따라 경북도와 영덕군은 기존 직원복지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리조트와 호텔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영덕군은 "고래불 해수욕장이 10년 전만 해도 연간 60만 명이 찾은 관광지였지만 지난해에는 8만여 명 방문에 그쳤다"며 "깨끗한 환경에서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관광호텔과 리조트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도는 "동해안 투자벨류업 프로젝트를 추진해 동해안 경제특구 지정과 동해안 휴양 벨트 융복합 개발을 핵심 사업으로 기획하고, 각 전략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투자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덕

군과 울진군을 비롯해 민간 투자사와 금융기관과 함께 '경북도·영덕군·울진군 동해안 투자펀드 실무협체'를 추진키로 했다.

김명중 영덕군 기획예산실장은 "이번 자리는 영덕군의 민간투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지역에 맞는 맞춤형 투자 전략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 영덕군의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경북도 민자활성화과장은 "이 자리가 투자펀드를 활용한 새로운 투자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동해안 휴양 벨트 개발을 위해 투자의 실행력을 높일 좋은 기회였다"며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투자펀드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동구청, 대규모 벌목 생태계 파괴 선구자...

환경단체, "동화천 금호강지류 대구의 마지막 '아름다운' 하천 동구청 싸늘이 벌목 단행으로 동화천 생태계 파괴한다" 주장

대구 동구청이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금호강 지류 인근 동화천 숲에 대규모 벌목을 진행하자 환경단체가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규탄했다.

금호강개발지리대구경북대책위원회 등은 27일 동화천 옆 공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시 자연성이 살아있는 동화천 싸늘이 벌목 단행한 대구 동구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동화천은 팔공산에서 발원해 금호강으로 흘러드는 금호강의 지류로 대구의 마지막 자연하천이라 평가받는 아름다운 하천"이라며 "그러나 동구청에서 싸늘이 벌목을 단행해 동화천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 하천"이라며 "그러나 동구청에서 싸늘이 벌목을 단행해 동화천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동화천은 화담산의 수목이 그대로 내려온 듯 왕버들 군락이 화담산 수목과 조화를 이뤄 아름답게 자리난 곳이라 특히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구간"이라며 "이곳은 생태적 온전성이 아주 뛰어난 곳으로 정비야 아닌 필히 보전이 되어야 하는 구간"이라고 말했다. 공사 구간은 대구 동구 지묘동 1345 일대로 왕산교에서 대원사까지 대략 2km 구간이다. 황태용 기자

月刊 정치와시림 11월 11일 첫 만남!



군위군의회, 황금배 미국 수출 현장 방문

군위군의회는 대구 군위군황금배수출영농조합법인 신과장을 방문하여 미국 수출을 앞둔 황금배 공동선별 작업 현장을 방문했다.

1999년 첫 수출 이후 25년간 꾸준히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은 군위 황금배는 올해도 우수한 품질로 수출 준비를 마쳤다.

뛰어난 맛과 품질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군위 황금배는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해왔다. 최규중의장은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황금배가 올해도 미국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함께 행복하게” 수성못페스티벌 성황리 마무리

수성구 보유 예술자원 구성 3일간 예술가·관람객 만족 거리공연 등 다채롭게 풍성

대구 수성구는 지난 27-29일까지 대구 대표 관광지 수성못에서 개최한 '2024 수성못페스티벌'이 많은 관람객과 지역예술인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상화동산, 수상무대, 남편무대, 울루루 문화광장, 빛나무길, 들안길 등 수성못 둘레 전역에서 진행됐으며 '함께, 행복하게'를 주제로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장으로 꾸러졌다.

첫날인 27일 영남국악관현악단과 미스트롯 2에서 우승을 차지한 가수 양지은, 국악인 이희문이 '퓨전 국악 콘서트' 무대에 올라 국악과 관현악, 대중음악이 어우러진 우리의 소리로 축제 의막을 울렸다.

지난해에는 축제 마지막 날만 볼 수 있었던 음악 불꽃쇼가 개막식에도 진행돼 축제 시작을 알렸다.

다음 날인 28일 낮에는 청소년들의 한마당 잔치가 펼쳐졌다. 상화동산에서는 지역 내 23개 초·중·고교에 음악 동아리들의 연주가, 수상무대에서는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와 수성미술가협회에서 주관하는 수성못 사생실기대회가 진행됐다.

같은 날 밤에는 수성못과 영상 음악 분수를 배경으로 'B.O.A.(Best Of Artists in Daegu) 콘서트'가 열렸다. 대구 출신 트로트 가수 한강, 재즈 보컬리스트 정은주, 프리소울, 모노폴로, EG오케스트라가 출연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축제 마지막 날인 29일 대규모 합창공연인 '수성행복콘서트'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일반 시민과 예술인 등 600여명이 직접 함께 준비해 만든 무대로, 함께 행복한 '오늘의 수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담아냈다.

공연이 끝난 후 7분간의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밝게 수놓아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가을밤의 추억을 선사했다.

이밖에도 행사장 곳곳에서 생활 예술인들과 전문거리예술팀의 공연, 수성맛집 빵축제, 대한민국 문화도시 수성 홍보존, 들안아트홀 등 가족과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열렸다.

들안길 일대에서 펼쳐진 들안길푸드페스티벌도 맛있는 음식으로 시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주민, 축제를 찾아주시는 많은 관람객 분들 덕분에 올해 수성못페스티벌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이번 축제를 위해 같이 힘써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많은 시민과 관람객이 찾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황태웅 기자



달성 100대 피아노...하루 1만8000여명 찾아

사문진 가을밤 낭만 속 성료 다양한 장르 피아노로 연출

달성문화재단이 주관하고 대구광역시(여야)마하뮤직코리아가 후원한 2024달성 100대 피아노가 지난 28일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에서 역대급 관람객들의 환호 속에 성황리 종료되었다.

달성 100대 피아노는 우리나라 최초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 나무터에 피아노가 유입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한 지역 대표 문화콘텐츠로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지역문화매력 100선(로컬100)'에 선정되며 역사성과 상징성을 인정받았다.

가을밤의 낭만 속 펼쳐진 이날 축제에서는 예술감독 김정원, 피아노 신박류(신미정, 박상욱), 피아니스트 최이삭,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96인으로 이루어진 100인의 피아니스트와 김광현이 지휘를 맡은 달성피아노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함께 '달성 100대 피아노만의 웅장한 음악을 들려주었다.

뉴에이지의 거장 유기 구라모토,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 가수 박정현의 무대로 클래식을 비롯한 재즈, 뉴에이지,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피아노에 녹여 내어 축제의 예술성을 극대화하며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성과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특히, 올해는 미디어 아티스트 금민정 작가의 작품으로 구현된 연출 영상들

이 가을밤 분위기와 함께 어우러지며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시원한 바람과 가을 밤하늘 아래에서 화려하게 펼쳐진 2024달성 100대 피아노는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으며, 하루 동안 1만8천여 명이 관람하는 명실상부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 축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다.

최재훈 달성문화재단 이사장은 "클래식부터 재즈, 뉴에이지, 대중음악까지 내실 있고 다채로운 공연과 100대의 피아노가 선사하는 아름다운 선율이 오랫동안 관람객들의 마음속에 기억될 바란다. 앞으로도 달성만의 특별한 문화 콘텐츠들로 누구에게나 호혜로운 문화도시 달성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군위군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신규 추천·신청 업소 점검 일부 지표 평가 결과 반영

군위군은 기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일제 정비 및 신규 업소에 대한 모집을 추진한다.

군위군은 30일까지 불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17개소를 비롯하여 신규로 추천·신청된 업소에 대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현지 실사와 점검을 통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대상은 군위군에 사업장을 두고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품목 관련 업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외식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이다.

지정 기준은 업소의 가격·위생·정결 수준과 지역화폐가맹점·지역사회공헌도 등 공공성이 점검 항목이며, 일부 지표의 평가 결과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이 보류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2024년 기준 업소별 인증 표창과 함께 물품지원 및 수도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규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군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작성 후 군 지역활력과(☎054-380-6629)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군위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들을 꾸준히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세계사격대회 유치 국비 133억 원 확보

대구광역시 세계사격대회 유치와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대구국제사격장 시설개선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체육시설 개선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33억 원을 확보했다.

대구시는 대구국제사격장을 세계사격연맹 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한 후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장애인세계사격선수권대회 등 각종 세계대회를 유치할 계획이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대한사격연맹과 협력해 세계사격대회 유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주요 시설개선사항에는 관중·소총 복합결선사격장 및 산탄총 사대 1면 추가조성과 경사로·엘리베이터·화장실·점자블록·주차장 등 장애인 편의시설 신설 또는 개보수가 포함된다.

시설개선사업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33억 원, 시비 57억 원 등 총 190억 원이 투입되며, 2025년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진행된다.

대구시는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 상반기 공사를 완료하고, 2027년 하반기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유치와 2030년 장애인세계사격선수권대회 유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장은 "세계사격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도시로 대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그동안 소외돼 왔던 장애인들의 사격스포츠 참여 기회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달서구 '두근두근 페스티벌' 성료

대구 달서구가 지난 28일 두류공원에서 결혼 특구 6주년을 기념하고 '잘 만나보세'뉴(NEW) 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해 진행한 '두근두근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두류공원 2.28 자유광장에서 '달서애(愛) 반하다, 달서에서 미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주민 1만여명이 다녀가 달

서구의 잘 만나보세'뉴(NEW)새마을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축제는 만남에서 가족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부스와 청년을 응원하는 다양한 체험·홍보 부스가 운영됐. 그리고 달달 사연 및 프리포즈 등을 신청받아 진행하는 보이는 라디오, 두근두근 매직별론쇼, SNS인증샷 공유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로 전 연령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북구보건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장관상

장애인 건강보건 성과대회 수행 실적·자원 활용 등 점검

북구보건소는 지난 27일 서울 건국대 세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성과대회'에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성과대회는 258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보건 서비스 수

행 실적, 자원 활용 정도 등 11개 항목을 점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데, 대구 북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모범적인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연계 협력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북구보건소는 2013년 '지역사회 재활협의체'를 구성하여 재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올해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운동교실, 만성질환 관리, 파크골프 교실, 문화체험 나들이 등 20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장애인의 건강과 재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구 지정음식점 홍보 SNS 이벤트

총 100명 당첨자 선정

대구 동구청은 30일부터 내달 27일까지 4주간 '동구지정음식점 홍보 SNS 인증샷 & 리뷰 이벤트'를 실시한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방법은 대구 동구맛집 홈페이지(https://food.dong.deagu.kr)에서 이벤트 참여 식당을 확인해 이용 후(소비금액 5천원 이상) 리뷰를 등록하고 인증하면 된다.

리뷰 등록은 네이버 MY 플러스 영수증 리뷰 또는 인스타그램에 음식사진과 함께 해시태그 3종(#업소명#대구동구지정음식점#맛있는동구) 게시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벤트 참여는 대구 동구맛집 홈페이지에서 해당 리뷰를 인증하면 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매주 화요일 25명씩 총 100명의 당첨자를 선정해 '동구맛집 명성을 담



은 밀키트' 10선 중 1개와 모바일 커피 쿠폰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동구 관내 다양한 지정음식점을 홍보하여 많은 분들이 동구의 맛을 즐기고 이를 통해 외식업소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가 직접해보니 너무 유익해요!

제89회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이 지 27일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영덕 축산중학교 학생 11명이 참여, 각각 의장, 의원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진행방식

과 동일하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 토론, 투표 및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 의회운영 전과정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청소년 정신 건강문제에 관심을

가지자 △딥페이크 범죄예방 등 5분 자유발언 △학교 내에서 이성교제 허락에 관한 조례안 △중학교에서 휴대폰을 거두면 안된다에 대한 조례안 등에 대한 찬반토론과 표결, 그리고 △청소년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민들 영천시민운동장 이전 건립 87% 찬성

영천시의회, 공공·활용·경제성 다양한 측면 타당성 검토 거쳐 4곳의 이전 후보지추천 제시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영천시민운동장 이전 건립 연구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 26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열렸다.

보고회에는 해당 연구모임 소속 배수예·김상호·이영기·이영우 시의원과 연구용역 수행업체 및 시 체육시설사업소, 새마을체육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 연구결과 발표를 듣고 영천시민운동장의 이전 건립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용역 수행업체는 지난 4월 연구용역 착수에 들어가 7월 중간보고회에서 시민운동장과 노후화 현황을 분석, 관련 상위계획 및 법규 검토를 마친 후 시민 설문조사 결과와 이전 후보지 2곳을 제시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답변자 중 87%의 시민들이 시민운동장 이전 건립 필요성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발표했다.

최종발표에서 사업규모와 사업비 등의 분석 및 사업추진의 공공·활용·경제성 등 다양한 측면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4곳의 이전 후보지를 추천하고 건립 후 관리·운영 방안 등도 함께 제시했다.

발표가 끝난 후 연구결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영기 시의원은 "시민운동장 이전 건립은 장기적인 과제로 큰 예산이 필요한 만큼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전 건립 사업이 확정된다면 영천에서도 대형 스포츠 행사를 개최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영우 시의원은 "이전 건립이 확정된다면 제시된 후보지의 주민들은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다.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전 건립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상호 시의원도 "타 시·군의 사례들을 보니 우리 영천시에도 훌륭한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의 필요성을 느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과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배수예 시의원은 "설문조사에서 시민운동장의 노후화로 인한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과 이전 건립의 필요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집행부와 함께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경북도,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공모사업 16건 선정

국비 26억 확보...경북의 세계유산 대한민국 역사 문화 저력 알린다

경북도가 국가유산청의 2025 세계유산 공모사업에 4개 분야 16건이 선정, 국비 26억원을 확보했다.

선정된 사업은, 세계유산 축전(1건),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사업(11건),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3건), 세계기록유산 홍보 지원사업(1건)이다.

세계유산 축전(국비 12억원)은 세계유산 '경주역사유적지구'를 대상으로 한 달여간 펼쳐지는 대구모 문화축전이다.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사전 북

업 조성 차원에서 개최돼 기대가 크다.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사업(국비 3억8000만원)은 경주, 안동, 영주, 고령에 있는 세계유산을 활용한 교육·체험·공연 등으로 유산가치를 국민과 더불어 향유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사업이다.

세계유산 공모사업 가운데 인기가 큰 사업으로서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국비 9억8000만원)은 '한국의 서원', '가야 고분군', '경주지역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새로 등재된 7개 가야 고분군 관련 지자체들이 공동신청한 사업이 주목된다.

세계기록유산 홍보 지원사업(국비 8000만

원)은 도내 기록유산을 알리는 대표적 사업이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보관하는 '유교책판'을 대상으로 초·중·고와 대학, 문화유산 관련기관 등의 순회전시회를 통해 해마다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우리나라 세계유산 16건 가운데 6건을 보유한 최다 지역으로서 위상에 걸맞은 체계적 보존·관리는 물론, 가치 향유를 위한 활용·홍보에도 최선을 다한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내년에 국가적 큰 행사인 '2025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경주는 물론 경북의 세계유산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문화 저력을 알리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영천·청도교육 현장소통토론회

디지털 기반 세계교육 표준 도약 의지 다져...

경북교육청은 27일 청도도서관에서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라는 슬로건으로 2024 영천·청도교육 현장소통토론회를 가졌다. 2024 현장소통토론회는 11개 직속 기관과 22

개 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 보고를 겸해 진행,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북교육 정책에 반영, 학교 현장 지원과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반기에는 1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총 6회 진행, 하반기에는 직속 기관을 포함해 총 5회 열린다.

후반기 첫 출발을 장식한 이날 영천·청도교

육 현장소통토론회에는 임종식 교육감과 이선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김하수 청도군수, 전종욱 청도군의회 의장, 청도와 영천 지역의 유·초·중·고 교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회장, 녹색어머니회 회장,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회 회장, 교육계 원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사는 이시군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김희수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학교 지원 실적과 업무 점검, 교육환경 개선 실적 등 두 지역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 보고로 시작됐다.

대구교통공사, 행정안전부 장관상

비용절감 수익증대 창사 이후 첫 대구시 운영 지원금 43억원 감소

대구교통공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 지방공공기관 혁신 및 투자 활성화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혁신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 행정안전부장관상(최우수)을 수상했다.

공모전은 제19회 지방공공기관의 날을 맞아 혁신 문화를 조성·확산하고자 혁신 및 투자 활성화 우수사례를 공모, 내·외부 심사절차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행사이다.

공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 경영혁신 전략을 수립, 8개 분야 41개 사업에서 357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6개 분야 18개 사업에서 610억원의 부대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창사 이후 최초로 대구시 운영 지원금을 43억원이나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장은 "이번 수상은 모든 임직원들이 경영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재정 건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계명문화대, 소방환경 기술사업단 출범

계명문화대와 조일고가 손잡고 지난 20일 인터불고 호텔에서 '스마트 소방환경 기술사업단 출범식'을 가졌다.

계명문화대는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기술사관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때문에 조일고와 함께 스마트 소방환경 기술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스마트 소방환경 기술사업단을 구성해 출범하게 됐다. 김성용 기자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꼭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

농림축산식품부 **krfb**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은행·농지연금

"나부터 정령하GO! 우리 함께 정령하GO! 모두 정령하GO!"

krfb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KORC 신주 1577-7770 (영농지원사업) 제 1-2021-0313(부)

경주시,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신청자 2차 모집

경주시가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 2차 신청자 모집을 이달 25일까지 진행한다. 1차 모집 시 연소득, 임대보증금 한도로 신청자 부족에 따라 보다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택을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시는 2차 모집 시 연소득 부부합산 금액을 당초 5000만~6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임대주택 지원 조건 중 월 임대료 60만원 이내는 유지하되, 임대보

증금은 기존 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내로 자격요건 범위를 넓혔다. 이외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 청년신혼부부는 매월 월세 5만원과 보증금만 부담하면 된다. 월 임대료 중 개인부담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경주시가 임대인에게 1년치를 선납하는 것이다.



경주시 관광컨벤션과, 관광도시 조성 한 획 그었다

관광경영 분야 우수 협력기관으로 선정

경주시 관광컨벤션과가 지역 관광경영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지난 27일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 호텔관광경영학과 40주년 기념행사에서 경주시 관광컨벤션과가 우수 가족 기관 감사패를 받았다. 힐튼경주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남심숙 문화관광국장이 대표로 참석해 수상했다. 시는 2023 대릉원 미디어아트 운영, 경주문화관 1918의 복합 문화공간 변신, 경주로ON 앱 등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의 관광 인프라 제공 등의

공로를 인정 받았다. 호텔관광경영학과 학생들과 지역 호텔 리조트 간 연계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재학생 대상 특강, 하이코 지역인재 인턴 우선 채용 등은 모범 사례로 평가됐다. 경주시 주관 축제 시 다양한 현장 체험활동 기회 제공, 내년 APEC 정상회의 자원봉사 우선 채용 등도 수상의 배경이 됐다. 남심숙 문화관광국장은 “국내 관광 1번지인 경주에서 동국대 호텔관광경영학과 학생들은 지역 관광 미래의 핵심 인물들이다.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역 대학들과 협력해 관광 분야에서 요구하는 유능한 인력 양성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남심숙 문화관광국장이 지난 27일 동국대 WISE 호텔관광경영학과 40주년 행사에서 감사패 수상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35회 후계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성황

500여 명 참여한 체육대회 '축하공연' 화합의 장 마련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 주관 '제35회 경주시 후계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가 27일 서경주체육공원에서 열렸다. '희망찬 경주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한농연!!!'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농업경영인 가족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가 됐다.

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송중만 한농연 도연합회회장, 농업인단체장, 회원 및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체육대회와 축하공연 등을 통해 진목을 다졌다. 먼저 전자바이올린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감사패 전달 및 우수회원 시상과 지난해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강동면회의 우승기 반환, 명랑운동회, 장기자랑, 우승팀 발표와 시상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영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장은 “활약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 안정문제, 지속되는 이상기후, 영농 인력부족 등 어려운 농업현실 속에서 농업인들의 새로운 길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며, “오늘만이라도 그간의 모든 근심, 걱정을 잊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주낙영 시장은 “농업과 농촌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후계농업경영인 여러분의 한결 같은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농업인을 위한 정책 발굴,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2021년 정부 지정하소멸위험지역 포함

저출생 극복 종교계 힘 뭉쳐 출산 장려, 가족문화 개선 등 문화확산 다함께 '동침' 다짐

경주시와 지역 종교 지도자들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은다. 시는 지난 26일 시청 대의협력실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 지도자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각 종교 공동체 내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과 방안을 논의하고, 종교 간의 협력 및 협조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박동한 경주시기독교연합회장과 성제 불국사총무국장, 이호봉 천주교경주지역사제단대표, 최상락 천도교중앙수도원장 등 다양한 종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경주시는 심각한 초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다. 혼인건수는 2000년 1915건에서 지난해는 784건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출생아 수도 계속 감소해 2005년 1.11명이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1명까지 낮아졌다. 여성이 평생 단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수치가. 경주지역 인구분포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등 역피라미드 형태가 고착화되면서 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시는 2021년 정부가 지정하는 소멸위험지역 118곳 중 한 곳에 포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와 경북도의 저출생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에 힘을 쏟기로 의견을 모았다. 종교계와 경제계, 언론 등 각계각층과 소통 및 연대를 강화해 생명과 가족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주도 계몽운동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로 종교계 역시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다 하겠다. 가족의 가치 회복과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서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과 힘을 합쳐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가족 친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제16회 경주버섯축제 성황리 열려

제16회 경주버섯축제가 지난 26일 경주 건천초등학교에서 열렸다. 경주버섯연구회가 주최·주관하고 경주시와 신경주농협이 후원하는 경주버섯축제는 전국 최대 버섯 주산지인 경주 건천에서 2년마다 개최된다. 축제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도시의원, 김병철 신경주농협조합장, 고연자 경주버섯연구회장을 비롯한 도내 농협 및 버섯 산업 관계자, 시민,

관광객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지역 버섯 산업 현황과 우수한 품질의 버섯을 실물로 볼 수 있는 버섯 홍보전시관을 포함해 버섯 사진전, 품평회, 요리 전시회가 펼쳐졌다. 직거래 판매 장터에서는 지역 농민이 직접 생산한 신선한 버섯과 버섯가공식품, 지역특산물 등을 구입하고자 방문객들로 북적이는 등 지역 버섯의 우수성과 인기를 입증했다.

윤용찬 기자/사진=경주시 제공

10월 천고마비 계절... 경주 '황금정원' 가볼까

경주 황남동 고분군에서 펼쳐질 지역 대표축제 '황금정원 가을축제'가 아름다운 가을꽃과 함께 관람

객을 만날 준비를 마쳤다. 이달 4~13일까지 10일간 경북웬튼캠퍼스 맞은편 황남동 고분군 일원에서

'Welcome to 경주 APEC'이라는 주제로 '경주 황금정원 가을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행사는 경주의 풍부한 자연과 정원문화를 조화롭게 접목한 특별한 축제로 경주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Advertisement for the 2025 APEC Summit in Gyeongju. It features the APEC logo, the text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and a large colorful graphic of the number '1918'. The text below reads: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The image features three overlapping promotional posters on a vibrant orange and yellow background. The top poster is for the '2024 Chongju Festival' (2024 청주 박람회), celebrating the 9th anniversary of Chongju's designation as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It features illustrations of persimmons and people, with dates from October 11 to 13 at the Chongju Outdoor Performance Venue. The middle poster is for the 'COAFE Comedy Festival' (청주 세계 코미디 아트 페스티벌), highlighting a special comedy performance on October 11-13 at the same venue. The bottom poster is for the '11th Chongju International Book Fair' (제11회 청주국제도서박람회), described as a 'bright light of lifelong learning', held from October 11-13 at the Chongju National Community Center. The background includes diagonal text: 'BANSI FESTIVAL' and 'LIFELONG LEARNING'.

2024 청주 박람회
주홍빛 청도식 9경
10.11(금) ~ 10.13(일)
청도야외공연장 일원

COAFE
청주 세계 코미디 아트 페스티벌
행복특별시 코미디 편지
2024.10.11(금)~10.13(일)
청도야외공연장 일원

제11회 청주국제도서박람회
다채로운 평생학습의 빛깔 - 배움도 니들도 청주!
2024. 10. 11.(금) ~ 10. 13.(일)
청도국민체육센터 일원